

한국어 의미학 27, 45-73 (2008. 12. 31.)

## 시제 어미 및 시제 상당 표현의 사용과 관련한 몇 문제\*

문 숙 영  
(서울대학교)

### <Abstract>

**Mun Suk-yeong, 2008. Some issues on the usage of tense endings and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tense.** *Korean Semantics, 27*. This article aims to argue that the usage of tense cannot be explained solely in terms of tense semantics and requires a consideration of tense pragmatics. In other words, what tense forms basically mean and when these tense forms are used are not identical but distinguishable ques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tense forms are selected at times because of their own connotative meaning and examples where the location of situation time and tense meaning do not agree are generally cases of 'intentional use'. This kind of occurrence of tense forms can be resulted from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r discourse structure of TV News.

주제어: 시제 어미(tense endings), 시제 상당 표현(an expression corresponding to tense), 상황시의 위치(the location of situation time), 담화유형(discourse type), 담화구조(discourse structure), '있었(-eosseoss-)', '-은 바 있(-eun ba iss-)'

## 1. 서론

---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37-A00090)

본고는 뉴스 보도문을 대상으로 하여 담화(혹은 텍스트)에 따라 특정 시제 어미가 회피되거나 시제에 상당하는 다른 구성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시제 어미가 오로지 상황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서만 선택되는 것은 아니며 담화 유형이나 구조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칙적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명제의 시간적 위치는 대개 시제 범주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제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는, 가능한 여러 수단 중 오직 문법범주로서의 장치일 뿐 상황의 시간적 위치가 온전히 시제 형식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시제가 ‘상황시의 위치를 지시’한다고 해서 시제가 오로지 상황시의 위치에 의해서만 선택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명제가 발화시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상황이고 이런 시간적 위치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명제에 반드시 ‘-었-’이 결합되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으며, 의미적으로 시제에 상당할 만한 ‘-은 바 있-’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sup>1)</sup> 시제 의미 이상의 특별한 뉘앙스가 수반되도록 현재표지 ‘-느-’가 결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가 시제 논의에 이처럼 시제 상당 표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담화에 따라 시제 어미의 출현이 제약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제에 상당할 만한 구성이 시제 어미 대신 사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은 데에서 비롯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해당 표현의 의미를 선호한, 화자의 자의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결과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특성은 그 회피된 시제 형식의 의미·화용론에서든 해당 구성의 의미론에서든 아니면 해당 담화의 문체론에서든 기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보도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모종의 이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1) 본고의 시제 상당 표현이란 이처럼 시제 어미를 대신하여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체를 가리키는 술어로서, 본고의 관심이 이들 표현의 고유 의미론보다는, ‘시제 어미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시간 관련 표현이 아니라 시제 관련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 대상이 시제 어미를 대신할 만한 표현에 국한되어 있어 자칫 ‘시간 관련 표현’이라 함으로써 ‘시간 부사류 및 시간 명사류’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런 양상이 시제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주요 자료는 2005년 3월 매주 수요일에 보도된 3개 방송국의 뉴스 보도문으로, 뉴스에 포함된 인터뷰는 제외하고 앵커멘트와 기자멘트만을 대상으로 삼는다.<sup>2)</sup>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구어체와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방송된 토크쇼 놀러와(MBC), 상상 플러스(KBS), 야심만만(SBS)에서 자료를 취할 것이다.<sup>3)</sup>

## 2. 시제 어미 및 시제 상당 표현의 사용 양상

우리의 자료에서 상황의 시간적 위치가 실제 어떤 장치에 의해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자. 한국어에 시제 체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개 그 체계는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sup>4)</sup> 본고는 ‘-겠-’을 비롯한 미래 표현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므로 시간 영역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단 ‘내일 학교 간다.’처럼 비과거 어미로 표현되는 미래는 ‘현재 표현’을 다루는 부분에서 함께 언급한다.

### 2.1. 과거 표현

한국어의 시제 어미 중 과거의 상황을 지시하는 데 이용되는 어미로는 단순과거 ‘-었-’과 대과거 ‘-있었-’이 있다. 우선 ‘-있었-’부터 논의해 보자.

‘대과거’가 지시하는 시점은 ‘모든 과거시점’에 앞선 것이라기보다 기준시

- 2) 모두 5주치 총 15회의 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뉴스 중에서 스포츠 뉴스와 일기예보는 제외하였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시제 어미 및 시제 상당 표현의 사용 양상은 앞뒤 문맥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대 말뭉치가 적당하지 않아 이런 적은 규모의 보도문을 선택하였다.
- 3) 뉴스 원시코퍼스는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기사의 경우 각각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통해 만들었고 텔레비전 토크쇼는 녹화 후 전사한 것을 이용하였다.
- 4) ‘-겠-’이 ‘먹었겠다’처럼 과거어미 뒤에도 결합되는 현상을 들어 ‘-겠-’을 양태 어미로 처리할 경우 한국어 시제 체계는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된다.

점으로 정해둔 특정 과거 시점에만 앞서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대과거’는 ‘과거’의 일부라 할 수 있다.<sup>5)</sup> 논리적으로 ‘대과거’의 외연은 ‘과거’의 외연보다 좁은 것이다.

그런데 단순 과거와 구별되는 ‘-있었-’의 대과거성은 기준시가 되는 과거 상황이 해당 문장 앞에 명시적으로 주어질 때 잘 드러나며, 따라서 대과거라는 의미는 사건을 역순으로 배열할 때 잘 발휘된다.<sup>6)</sup> 서사 담화의 경우 사건의 제시 순서와 발생순서 간에는 도상성이 있어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경우 선행 문장의 대과거 표지는 잉여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sup>7)</sup>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되는 경우는 순차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행 문장이 더 과거의 것임을 지시하는, 대과거 표지와 같은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되었음을 명시하는 손쉬운 수단이 ‘-있었-’이고 ‘-있었-’의 존재 의의가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될 때 가장 잘 발휘된다면, 본고의 논의 대상인 보도문에서도 사건이 역순으로 제시될 때는 ‘-있었-’이 선택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본고의 주 연구 자료인 총 15편의 뉴스에서 발견한 ‘-있었-’은 모두 3회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2회가 이처럼 사

5) ‘-있었-’은 절대시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상황을 위치시키는 것이므로 그 범주는 절대-상대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익섭(1978:372-373)에서도 ‘-있었-’은 ‘-있-’으로 나타나는 과거 상황의 때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시제로서의 과거를 대표하는 요소라고 한 바 있다.

6) ‘-있었-’의 역순 표시 기능에 대해서는 이남순(1994), 문속영(2003)을 참조할 수 있고, 영어 대과거(Pluperfect)의 역순 표시 기능에 대해서는 Comrie(1985)를 참조할 수 있다.

7) 사건이 제시되는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같게 되면, 선행 문장의 상황은 늘 후행 상황에 비해 먼저 일어난 과거 사건, 즉 대과거 사건이 된다. 예컨대 다음의 예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된 전형적인 예로, 문장 ㉠은 ㉡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 상황, 문장 ㉢은 문장 ㉡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 상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요인 경호용 특수 무전기 1대가 분실된 것은 지난 1월 하순. 무전기 주파수가 노출되면 대통령 경호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경호실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경호실은 청와대 경내를 샅샅히 뒤졌지만 끝내 무전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호실은 무전기 주파수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담당자와 직속 상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나열된 상황 연쇄의 경우 선행 문장에 대과거 표지가 결합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기준이라면 모든 선행 문장에 ‘-있었-’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이 역순으로 배열될 때 사용된 것이었다. 아래가 그 예이다.<sup>8)</sup>

- (1) ㄱ. 임명장 수여식 자리. 분위기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정계전력이 뒤늦게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90년에서 91년 내무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시장, 군수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내무부는 감사원의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당시 의정부 시장을 직위 해제하고 해임을 요구했었습니다. 93년 문민정부 초기 서슬 퍼런 전방위 감찰의 결과였습니다.
- ㄴ. 노조가 임금동결에 합의하면 임금인상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겠다, 주요 대기업들은 오늘 노무인사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3.9%를 제시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연간 인건비가 3조 정도여서 3.9%를 적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의 방침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요구했었다’나 ‘제시했었다’는 앞 문장의 상황보다 더 이른 과거의 것임을 드러낸다. 즉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됨으로써 ‘-있었-’의 대과거성이 드러나는 예인 것이다. 나머지 1회는 선행 문장이 없는 앵커의 시작멘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역순 배열의 상황에서 쓰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과거성이 부각되도록 선택된 것이기는 하다. 다음을 보자.

- (2) 어제 가명으로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금계좌를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 었죠. 검찰이 비슷한 계좌 5개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들 계좌의 돈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위에서 ‘드렸었죠’는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행하는 문장의 상황인 ‘또 발견했습니다’보다 이전에 일어난 대과거의 상황이다.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 드렸죠’와 같이 단순 과거형

8) 본고의 예문은 대부분 실제 뉴스의 것을 그대로 옮기나, 실명이 문제가 될 만한 경우에는 실명을 삭제하여 제시한다.

으로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지만, ‘-있었-’을 씌으로써 ‘오늘의 뉴스’보다 더 과거의 상황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요컨대 보도문에서 ‘-있었-’은 그 빈도가 무척 낮기는 하지만, 대개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더 과거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의미가 필요한 곳, 주로 상황이 역순으로 배열될 때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다음 물음은 상황이 역순으로 배열되는 경우, 더 정확히는 상황의 시간적 위치가 역순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 후행 문장에 제시되는 더 먼 상황은 항상 ‘-있었-’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제 어미가 문장의 필수범주이고 대과거의 존재 의의가 사건의 역순 배열 표시에서 드러난다면 적어도 과거 상황이 역순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있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관찰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름이 확인된다. 역순의 상황 연쇄라 하더라도 ‘-있었-’이 결합되는 대신, 단순 과거인 ‘-있-’이 선택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아예 시제 어미 대신 ‘-은 바 있-’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되었지만 ‘-있었-’이 아니라 ‘-있-’이 결합된 예이다.

- (3) ㄱ. 국무조정실장이 과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 실장은 지난 90년에서 91년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시절, 일선 시도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사실이 93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실장의 해임을 내무부에 요구해 조 실장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ㄴ. 김정일 위원장이 2년 만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2차 세계대전 승리 60돌 기념의 달도 함께 받았습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2000년 이후 4번째로 중국 대사관을 한 차례만 찾은 것과 비교해 의미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북한은 더구나 지난달 핵무기 보유 설명도 러시아측에만 미리 알려줬습니다.

(3ㄱ)의 밑줄 친 부분은 ‘93년’이라는 시간 부사어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앞

문장의 상황보다 더 일찍 일어난 상황으로, 대과거 ‘-있었-’이 쓰임직한 자리이지만 단순과거인 ‘-았-’이 결합되었다. (3ㄴ)의 밑줄 친 부분도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사건’에 비해 대과거의 상황이고 역순으로 배열되었지만 단순과거 ‘-았-’이 결합되고 있다. 이처럼 ‘-있었-’이 기대될 만한 자리에 ‘-았-’이 오는 예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sup>9)</sup>

다음은 ‘-있었-’ 자리에 ‘-은 바 있-’이 선택된 예들이다.

(4) ㄱ. 바로 옆에 도토리현 의회가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도토리현 의회는 지난 92년에도 똑 같은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ㄴ. 그러나 감정을 맡은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오늘 이 작품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경매에서 3억 1000만원에 낙찰된 개구리와 아이들 등 다른 세 작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섭의 유족들은 이미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그림들이 50여 년 동안 소장해 온 그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ㄷ. 마스하도프는 체첸 1차 전쟁이 끝난 지난 97년 체첸 대통령을 지냈으며 러시아에 대한 테러 전쟁을 감행해 왔습니다. 마스하도프는 그러나 극단적인 바스다도프와는 달리 협상을 강조해 오는 등 온건한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참사 뒤 두 반군 지도자 체포에 1000만 달러 현상금을 내건 바 있습니다. 온건파 마스하도프의 사망으로 러시아에 대한 체첸 반군의 테러가 앞으로 더욱 극력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은 바 있-’이 결합된 문장은 모두 선행하는 과거 문장의 상황보다 더 이른 과거의 상황으로서, 보통 ‘-있었-’이 결합될 만한 문장들인

9) ‘-있었-’이 올 만한 자리에 ‘-았-’이 쓰인 예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있었-’이 올 만한 자리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 벌어진 상황과 1년 전에 벌어진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런 경우는 ‘-있었-’이 올 만한 자리라고 하기 쉽지만,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이 이어지는 경우 과연 후속 문장이 ‘-있었-’이 결합되어야 하는 환경인지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있었-’이 기대될 만한 자리에 ‘-았-’이 오는 예가 실제 ‘-있었-’이 쓰인 예보다 많다는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 후속되는 문장에 시간 부사어구가 명기되어 있어 선행 상황과 후행 상황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는 예만 찾아도 10회가 넘는다.

것이 확인된다.

보도문에서의 ‘-있었-’의 낮은 빈도 자체는, 일차적으로는 보도문이 주로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구성되는 경향이 많아 역순 배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순으로 제시되는 사건이 얼마 안 되는 중에서도 이들이 모두 ‘-있었-’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번쯤 살펴볼 만한 현상이다.

단순과거인 ‘-있-’은 어떠한가? ‘-있었-’의 출현이 상당히 제약되었던 것과는 달리, 과거 상황인 경우 ‘-있-’이 결합되는 데는 큰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과거의 상황이지만 생생한 효과를 위해 현재시제로 표현하는 ‘역사적 현재’의 용법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2.2. 현재 표현

현대 한국어 시제 체계가 ‘먹었다’와 ‘먹는다’의 대립처럼 ‘-있-’과 ‘-느-’가 대립을 이루는 환경과 ‘먹었습니다’와 ‘먹습니다’의 대립처럼 ‘-있-’과 ‘영 형태’가 대립을 이루는 환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의 시간적 위치가 현재에 있음을 지시하는 데 이용되는 시제 어미에는 ‘-느-’와 ‘영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나 내일 갑니다.’나 ‘나 내일 간다.’에서 보듯이 미래 상황에도 결합된다는 점에서 현재만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를 지시하는 데 어떤 형식이 이용되는가 하는 문제 외에, ‘-있-’과 대립을 이루는 이들 표지가 주로 어떤 종류의 시간을 지시하는 데 쓰이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보도문은 주로 함쇼체와 해요체 어미로 표현되므로 ‘-느-’가 아니라 ‘영 형태’의 표지가 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논의될 ‘-고 있-’과의 대조를 위해 이 ‘영 형태’나 ‘영 형태’가 결합된 예를 단순 현재 혹은 단순 현재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단순 현재가 결합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 현재까지 이어지는 습관이나 반복 상황, 일반적 진리 상황’ 등이 거론되어 왔

다. 즉 ‘일반적 진리’처럼 본질적으로 상황시의 시작점과 끝점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든, 아니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없었고 현재에만 유효한 상황이든, ‘문제의 상황이 현재 발화시에 위치해 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현재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실제 보도문 담화를 들여다보면 단순 현재형이 이 모든 상황에 아울러 사용되기보다 ‘지속(continuous)’의 ‘-고 있-’과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우선 단순 현재형은 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상황’이나 실제로는 과거의 상황이지만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재로 표현되는 ‘역사적 현재’의 예들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다음은 단순 현재형이 미래 상황에 쓰인 예이다.

(5) ㄱ. 이 조항은 기존의 호적을 대신 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완비되는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ㄴ. 지울 스님은 다음 주 초 천성산으로 돌아가 민간공동조사단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5)의 예는 ‘2008년’ ‘다음 주 초’라는 시간 부사어가 말해주듯이 미래의 상황이 단순 현재로 표현된 예이다. 단순 현재로 표현된 예 중에서 이처럼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것은 뉴스 세 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회로 집계되었는데, 이 빈도는 단순 현재형 총 빈도의 약 34%에 해당하는 것이다.<sup>10)</sup>

다음은 과거 상황이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된, ‘역사적 현재’의 예이다.

(6) ㄱ. 1868년 일본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로 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ㄴ. 조례안이 가결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ㄷ. 오후까지 농성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시간까지 넘겨버리자 여당 의원들이

10) 앞뒤 문맥을 고려해 실제 지시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우리의 15편 뉴스에서 세 편만 뽑아 살펴보았다. 이 수치는 ‘-고 있-’은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문이나 계사문은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이다.

육탄으로 문을 열어보려 시도합니다.

(6ㄱ)은 ‘1868년’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알려주듯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 전형적인 역사적 현재의 예이다. (6ㄴ, ㄷ)은 이미 일어난 일을 자료 화면과 함께 현재형으로 제시하는 문장들이다. 이들 모두 뉴스 발화 당시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고 모두 ‘-었-’으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현재의 예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현재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는 역시 뉴스 세 편을 집계했을 때 약 24회 발견되는데,<sup>11)</sup> 이는 단순 현재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밖에 단순 현재로 표현된 예로는 일반적 사실이나 보편적 진리를 표현하는 경우와 ‘-으로 풀이됩니다’처럼 발화자의 논평에 쓰인 경우가 있다. 다음이 각각의 예이다.

- (7) ㄱ. 휴대전화의 긴급재난 문자방송 서비스는 갑작스런 기상 변화와 자연재해를 바로 알려줍니다.  
 ㄴ. 이처럼 확고한 입장은 독도문제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일 현안에 대한 처리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대일경고와 함께 협조 요청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7ㄱ)은 휴대전화의 재난방송 서비스를 설명한 기사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진리’를 진술하는 상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인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단순 현재가 쓰인 예는 총 4회 발견된다. (7ㄴ)의 ‘-으로 풀이되다’는 화자의 논평에 가까운 문장으로, 간혹 ‘풀이되고 있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먹고 있다’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

11) ‘약 24회’처럼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것은, 읽기에 따라 ‘역사적 현재’ 용법인지 ‘미래 용법’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6ㄴ)의 경우 이 진술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제공된다면 ‘단순 현재’나 ‘역사적 현재’의 용법에 가깝고, 이 진술 후에 자료 화면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미래 지시’의 예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료 화면이 제공되는 경우는 우선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중히 여겨 ‘역사적 현재’로 분류하였다.

가 느껴진다. 이런 상황이 단순 현재로 표현된 예는 약 6회 정도 보인다.

이 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즉 순수하게 현재 상황을 표시하는 단순 현재가 이용된 예는 약 5회 내외이다. 빈도를 이처럼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들 예가 역사적 현재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현재 벌어지는 상황’임을 지시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8) ㄱ. 이 약은 최근에 개발된 신약으로서 사용이 급증 추세에 있으나 오늘 안전성 정보 서한으로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권유합니다.

ㄴ. 비타민과 무기질이 든 야채를 많이 섭취해 스트레스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고 조급한 생각은 버리고 생활의 리듬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전문의들은 충고합니다.

위의 예들은 각각 ‘권유하고 있다’나 ‘충고하고 있다’로 바꿀 경우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즉 현재 상황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권유했다’나 ‘충고했다’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 현재의 용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sup>12)</sup> 이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쓰이는 단순 현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극히 낮고 이 예들이 실제로 과거 상황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보도문에서의 단순 현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보다 주로 역사적 현재나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데 사용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단순 현재의 이런 양상은 ‘-고 있-’의 양상과는 대조되는 점이 있다. ‘-고 있-’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세 편의 뉴스에서 단순 현재형의 빈도가 59회였던 것에 비하면 ‘-고 있-’의 출현빈도는 총 77회로 상당히 높게 발견된다. ‘-고 있-’ 형 중에는 예컨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지시할 때의 ‘옷을 입고 있다’처럼 결과상(resultative)의

12) 이 예들은 해당 멘트 뒤에 인터뷰 화면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 역사적 현재나 미래 상황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시한 예로 분류하였다. 역사적 현재는 원래 과거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 현재로 표현된 것이므로 과거시제로의 대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3.1.참조.

예들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 현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시하는 데 쓰였던 경우가 5회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다음의 예는 현재 상황을 지시하는 데 ‘-고 있-’이 결합된 예로서 단순 현재로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예에서 { } 표시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 (9) ㄱ. 깊은 바다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길어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먹는 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인 양 {팔고 있습니다./팝니다.}
- ㄴ. 전면 개방 발표와 함께 오후 들어서는 방송과 신문 취재진들이 한꺼번에 우리 땅 독도를 찾았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한국령이라는 세 글자가 바로 오늘 이곳 독도의 현 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말해줍니다.}

(9)의 예처럼 원래 ‘-고 있-’이 결합되었지만 단순 현재로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 예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재 상황을 지시하는 데 이론적으로는 ‘-고 있-’과 단순 현재형이 모두 쓰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 현재형보다 ‘-고 있-’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보도문의 경우 단순 현재형은 주로 역사적 현재와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데 이용되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고 있-’이 담당하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 3. 시제 논의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었었-’ 자리에 ‘-었-’이나 ‘-은 바 있-’이 쓰인다거나 혹은 과거 상황이 현재시제로 표현된다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경우 단순 현재형보다는 ‘-고 있-’으로 표현되는 일이 많다는 등의 분석 결과는 언뜻 보기에 다분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한국어 시제 논의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작지 않다. 일례로, ‘-었-’이 ‘-었었-’ 자리에 쓰임은 ‘-었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단순 현재형이 아닌 ‘-고 있-’이 주로 쓰임은 ‘-었-’과 대조되는 ‘영 형태’나 ‘-느-’를 ‘비과거 형식’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증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간 ‘-었었-’을 ‘-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었었-’을 대과거표지로 보는 주장에 반례가 되어 온 것처럼, 이런 현상은 이들 형식을 시제 아닌 다른 범주의 것으로 처리하자거나 이들 형식의 기본의미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요컨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들 형식의 범주와 의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런 현상이 한국어 시제 논의에 시사하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1. 시제 형식의 화용론

앞에서 살펴본 시제 어미 사이의 교체나 시제 상당 표현으로의 대체 현상은, 이들 형식이 시제 범주가 아닐 가능성을 일단 배제한다면, 시제 형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시제 형식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었-’의 의미는 ‘과거’이지만 대과거 상황에 결합되고 단순 현재는 보통 ‘비과거 표지’로 명명되지만 현재 상황에는 잘 사용되지 않거나 과거 상황에도 사용되는 예 등은, 모두 상황이 원래 요구한 시제와 실제 표현된 시제가 다른 예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런 예들의 존재는, 시제가 ‘상황시의 위치’를 지시하는 범주라고 해서 시제 형식을 선택하는 변수가 오로지 ‘상황시의 위치’에만 있겠는가를 묻기에 충분하다.

시제 형식이 오로지 해당 시간만을 지시하도록 사용되는 언어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과거 시제가 과거 시간만을 지시하는 일은 없다는 기술이나(Comrie 1985), 시제 형식이 오로지 시간만을 지시하는 언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기술(Wallace 1982) 등은 모두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본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용법을 혹시 부차적 의미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영어의 공손 표지에 과거형이 이용되는 것처럼 언어에 따라 시제 형식이 부차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물론 많지만, 우

리의 현상은 부차적 의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시제 형식의 화용론적인 ‘사용’으로 보는 편이 적당하다. ‘-었었-’ 자리에 ‘-었-’이 쓰였다고 해서 이때의 ‘-었-’이 과거 의미가 아닌, 대과거나 그 밖의 의미를 지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제가 그 지시 의미인 ‘상황시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종의 다른 이유에 의해 변칙적으로 선택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었-’이 결합되어야 하는 과거 상황에 현재시제를 결합하는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 용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sup>13)</sup> 그간 역사적 현재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용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로 역사적 현재가 나타나는 이유나 조건을 천착하는 데 집중되어 왔는데, 본고는 ‘역사적 현재’와 같은 용법의 존재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시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제 형식의 화용론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역사적 현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해당 상황을 극적이면서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 있든(Jespersen 1929:19), 이야기 단위를 분절할 때 사용하는 데 있든(Wolfson 1979:173), 이 용법이 현재시제가 내포할 수 있는 표현 효과를 노린 전략적 사용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시제의 의미론이 아니라 화용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현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0) ㄱ. 실제 ‘과거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축자적 의미는 ‘현재 상황’을 지시한다. 즉 과거 상황에 결합된 현재 표지는 여전히 ‘현재시’를 지시하며, ‘과거 상황’이라는 해석은 앞뒤 맥락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장을 문맥 없이 제시할 경우 ‘과거 상황’이라는 해석은 얻어지지 않는다.
- ㄴ. 화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과거시제로 회귀될 수 있다.
- ㄷ. 모든 사람이 이런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텍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의 특징은 역사적 현재가 모두 문맥-의존적 해석의 산물이며 화자에 따

13) Jespersen(1929:19)와 Joos(1964:125)는 이를 ‘dramatic present’라고 부른다.

라 그 선택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용법임을 말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여기에 결합된 현재 표지는 변함없이 ‘현재시’를 지시하지만 실제 결합된 상황은 ‘과거’라는 사실은, 현재 표지를 선택할 때 상황의 시간적 위치 자체가 변수가 되지 않는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과거의 상황이지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었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동기가 되어, 이런 표현적 효과를 내포하는 데 어떤 시제 형식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 현재’는 현재시제가 가지는 표현 효과를 노린 전략적 사용의 결과로 인정해야 하고, 이런 역사적 현재의 존재는 다른 시제 형식도 이와 유사한 전략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논의 대상도 ‘역사적 현재’와 유사하게 화용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역사적 현재가 사용되는 조건으로, ‘과거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적절한 문맥과 현재 시제의 내포 의미나 효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들의 변칙적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담화(혹은 텍스트)의 특성과<sup>15)</sup> 해당 시제 형식의 함축적 의미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도문에서 ‘-있었-’이 잘 나타나지 않고 역순의 사건 연쇄에서도 종종 ‘-있-’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담화 유형이나 담화 특성이 시제 형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언어 보편적으로 대과거 자리에 단순과거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과거도 본질적으로 과거이므로 외연이 넓은 과거가 외연이 상대적으로 좁은 대과거를 대신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있었-’이 나타날 자리에 단순히 ‘-있-’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의 고유 기능이 발휘될 만한 역순 배열의 사건에서조차 ‘-있었-’ 대

14) 역사적 현재의 문장이 담화나 이야기 분절의 첫 도입부에 쓰일 수 없음을 이것이 순전히 문맥-의존적 사용임을 보여주는 제약이다.

15) 텍스트는 문자로 구현된 것이고 담화는 음성언어로 구현되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보도문은 텍스트로 작성되나 음성언어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담화와 텍스트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본고에서는 보도문이 실제 발화상황과 연결되면서 상황적 자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중히 여겨 일단 담화를 문면에 세우기로 한다.

신 ‘-었-’이 쓰인다는 데 있다. 대과거의 고유 기능이 역순 배열의 사건에서 후행절에 놓인 더 이른 사건을 명시할 때 발휘된다고 한 이상, ‘-있었-’이 이런 환경에서조차 고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대과거 표지라는 범주를 할당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현재’가 실제로는 ‘과거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문맥에서만 허용되는 것처럼, 대과거 자리에 쓰인 ‘-었-’도 어떤 식으로든 해당 상황이 선행 문장의 상황보다 더 일찍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더 이른 과거 상황’이라는 해석은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대개 함께 쓰인 시간 부사어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 (11) 녹색연합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항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예에서 만약 시간 부사어구가 없는 경우에는 ‘-있었-’이 결합되어야만 역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위의 예에서 시간 부사어구를 삭제하고 대신 ‘-있었-’을 결합해 본 아래 (12ㄱ)을 보면 분명해진다. 만약 (12ㄴ)처럼 시간 부사어구만 삭제하고 ‘-었-’을 그대로 두면 사건은 역순이 아니라 제시 순서대로 발생한 것처럼 해석된다.<sup>16)</sup> 보도문의 경우 ‘-있었-’ 자리에 쓰인 ‘-있-’에는 대개 이런 시간 부사어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보도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 (12) ㄱ. 녹색연합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16) 이런 점은 ‘-있었-’의 기본 기능이 대과거 표시에 있다고 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된다.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나. 녹색연합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똑같이 시간 부사어구가 병기된다 하더라도 왜 보도문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었-’이 ‘-었었-’을 대신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보도문은 사태(state-of-affair)를 실제 발화상황과 연결 짓는 비-서사담화(non-narrative)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사담화(narrative)에서 사태는 실제 발화상황과 화시적으로 연결되기보다, 담화가 생산되는 실제 시공간에서 분리되어 문장들이 조용적으로(anaphoric) 연결된다. 쉽게 말해 단순 과거 문장이  $S_1$ ,  $S_2$ ,  $S_3$  순서로 배열된다면 대개  $S_2$ 는  $S_1$ 기준으로 나중에 일어난 상황, 다시  $S_3$ 은  $S_2$ 기준으로 나중에 일어난 상황으로 추론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담화에서는 시간적으로 앞선 관계의 경우 대과거와 같은 명시적인 표지가 필요하다.<sup>17)</sup> 그러나 보도문은 실제 발화 상황 속에서 화자의 발화를 통해 사건이 전달되는 담화이므로, 발화의 상황적 자질(situational feature)들이 발화의 이해에 직접 관여하면서 대과거 표지 없이도 역순으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문어담화에서는 잘 허용되지 않는 역순 해석이 구어담화에서는 보다 쉽게 수용되는 예는 영어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Caenepeel & Moens(1994)는 ‘Jane left me. She fell in love with somebody else.’의 예 등이 문어담화에서 제시되면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구어담화에서 제공될 경우 얼마든지 역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구어담화의 경우 발화상

17) 후행 문장의 ‘-었었-’이 선행 문장의 ‘-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임을 표시한다는 대과거 고유의 기능은, 기준시를 발화시에 두었을 때의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시로 했을 때의 것이다. 즉 다른 시제 형식은 발화시와 사건시 간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대과거는 사건시와 사건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황 속에 수반되는 표현적(expressive), 통보적(communicative) 요소나 운율(prosody)과 같은 상황적 자질들이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보도문이 이런 구어담화의 성격을 완전히 갖춘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발화상황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서사담화보다는 상황적 자질이 역순 해석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다.

보도문의 담화 유형이 서사담화와 구별된다는 점은 ‘역사적 현재’의 출현 양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사 담화에서 ‘역사적 현재’는 새로운 이야기 시작되는 장면 전환이나 화제 전환 부분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되어 왔는데(Wolfson 1979), 적어도 보도문에서는 역사적 현재의 사용에 대한 어떤 제약도 찾기 어렵다. 예컨대 기자의 첫 멘트에서도 역사적 현재가 나타날 수 있으며,<sup>18)</sup> 여러 과거 상황이 하나의 멘트 안에 나열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떤 상황이든 역사적 현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보도되는 상황이 모두 발화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난 것임을 화·청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자료 화면과 같은 보조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상황이 실제 벌어졌던 시간으로 발화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sup>19)</sup>

이처럼 보도문의 담화 특성이 현재로 표현된 상황을 과거로 해석하도록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단순과거의 연쇄를 역순으로 해석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보도문에는 시간부사 어구가 명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과거 표지가 없더라도 이 시간부사어구에 의지해 상황들 사이의 시간상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는

18) 아래 예에서 기자의 첫 멘트에 역사적 현재가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진동에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들림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12톤 트럭을 모는 송정봉 씨. 웬지 모르게 승용차를 탈 때보다 훨씬 빨리 피곤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차량 진동 때문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 이는 소설과 같은 서사담화와 영화와 같은 영상물 중 무엇이 회상 장면을 삽입하는 게 자유로울지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소설에서는 회상 장면이 시작된다는 별도의 암시가 필요하지만 영상물은 상대적으로 이런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적다.

점도 ‘-있었-’에 대한 필요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sup>20)</sup> 본고의 가정처럼 보도문이 구현되는 발화 상황의 상황적 자질이나 시간부사어구들이 상황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역순 해석을 이끌기 위해 대과거표지를 꼭 써야 하는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로 이해될 수 있다.

보도문에서 ‘-있었-’이 잘 안 쓰이는 이유는 ‘-있었-’이 구성하는 담화구조와 보도문이 선호하는 담화구조가 다른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사담화에서 ‘단순과거-대과거’ 연쇄는 ‘담화 화제(혹은 주정보)-설명(혹은 부차정보)’의 담화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서사담화에서 역순으로 사건을 배열하고 후행 문장에 대과거를 쓰는 것은 담화화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정교화(elaboration)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를 보도문에 적용하면 이런 연쇄를 잘 쓰지 않는 것은 ‘화제-설명’ 구조로의 추론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보도문의 경우 사건이 ‘-있었-’의 도움 없이 역순으로 제시되는 경우 후행 사건이 선행 사건에 대한 부차적 정보로 덧붙여졌다기보다 각각의 사건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아래 예에서 (13ㄱ)은 선행 문장이 ‘화제’이고 후행 문장이 ‘부차 정보’라는 효과를 전달한다. 반면에 (13ㄴ)은 이런 정보의 두드러짐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3) ㄱ. 북한과 미국은 10일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한다고 현지 외교관들이 밝혔다.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시작 하루 만인 9일 중단됐었다.

ㄴ. 학교 안에 설치된 이들의 동상을 철거하고 기념관의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 학생위원회가 친일 교수의 행적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지난 11일 친일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20) 우리는 앞에서 ‘-있었-’ 대신에 ‘-있-’이 쓰인 경우 대개 더 이른 과거의 사건임을 알려주는 시간부사어구가 병기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시간부사어구에 의지해 더 이른 과거를 해석해 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도문의 상황이 발화시와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기준시를 발화시에 두는 것이 상황시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가늠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각 대학은 객관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친일 청산 운동은 대학가에 한바탕 소용돌이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보도문에서 사건이 역순으로 배열되더라도 선행 상황과 후행 상황 간에 ‘화제-설명’과 같은 담화구조를 형성할 의도가 없을 경우, 즉 각각의 사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자 할 경우 ‘-었었-’을 잘 쓰지 않으리라는 가정은 다음 예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 (14)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양보할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 제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어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시마네현 의회가 오늘 벌어진 불상사의 행동대원이라면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우경화가 이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선행 상황보다 더 과거의 것으로 ‘-었었-’이 움직인 자리이다. 그러나 선행 상황은 ‘시마네현의 오늘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고 후행 상황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익 정치인들의 행동을 기술한 것으로, 둘 다 ‘화제’이거나 둘 다 ‘설명’일 가능성이 높지 뒤의 문장만이 ‘설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sup>21)</sup> 이런 예들을 보면 보도문에서의 ‘-었었-’의 낮은 빈도는 보도문에서 추구하는 담화 구조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측이 더욱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고 있-’이 주로 사용되고 전통적으로 현재 상황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어 왔던 단순 현재형은 역사적 현재 용법

21) ‘화제-설명’ 구조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었었-’을 회피한 동기에 속하는 것인지, ‘-었었-’을 쓰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었었-’을 쓰는 경우 해당 명제가 ‘설명’이 되고 ‘-었-’을 쓰는 경우 ‘설명’을 첨가하는 느낌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나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분화를 겪은 것도 보도문의 담화 유형과 관련이 있는가? 보도문의 상황적 자질이나 담화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보도문이 요구하는 정보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뉴스 보도문에서 다루는 주요 정보 내용을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개 과거의 상황과, ‘현재 결과’나 ‘현재 진행’을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현재를 표시해 온 단순 현재형은 일반적 진리나 역사적 현재뿐 아니라 미래 상황을 지시하는 데도 쓰임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적극적인 표시를 독점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상황을 독점적으로 표시할 다른 수단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제의 사용 양상에 담화유형이나 담화구조와 같은 문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시제 화용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제 형식의 어떤 의미론적 특성이 이런 변칙적 사용을 허가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시제의 이런 변칙적 사용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시제 형식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를 고려하고자 한다. 함축적 의미를 의도해 어떤 시제 형식이 선택되기도 하고 또 그 함축적 의미를 배제하기 위해 그 시제 형식이 회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현재’ 용법을 보면 시제 형식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가 선택의 변수가 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상황이 현재시제로 표현되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처럼 극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 대체로 분명하고, 이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거나 상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함축을 가지지 않는 현재시제만이 내포할 수 있는 효과에서 비롯된다. 현재시제가 ‘묘사의 시제’로 불리어 온 것도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한다.

‘역사적 현재’ 용법의 존재 외에도 함축적 의미가 시제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됨을 방증하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가 더 있다.(문숙영 2005:53-55) 22)

22) 문숙영(2005)에서는 이 외에 한국어의 경우 시제는 필수 범주이면서 종류는 과거와 비과거 밖에 없으므로 현재 완결적 상황 등 상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시제 형식이 전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본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15) ㄱ. 언어 형식의 의미 확대 과정에는 함축의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ㄴ. 시제 형식의 선택과 이해는 문맥-독립적 환경에서보다는 대개 문맥-의존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축적 의미가 취소되는 예들만큼 함축적 의미가 추론되고 보존되는 예들이 있을 수 있다.

(15ㄱ)은 시제 어미의 ‘의미’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겨냥해 사용되는 예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에 답하기 위한 근거이다. 함축의 관습화에 의한 의미 변화의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함축이 추론될 만한 사용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시, 현재에도 어느 부분에서는 함축의 관습화가 진행 중일 수 있고, 관습화로까지는 진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함축적 의미가 추론 되도록 사용된 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15 ㄴ)은 ‘함축적 의미’는 취소 가능하므로 그 자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에 맞서기 위한 근거이다. 그간 ‘의미’와 구별되는 함축의 특성으로 ‘취소가능성’이 언급되어 온 것은, ‘함축’이 모든 문맥에서 유지되는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문맥에서 언제나 취소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대개는 문맥-의존적으로 사용되는 시제의 경우 함축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함축적 의미’가 시제 선택의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은 늘 탈문맥적 환경에서 시제의 쓰임을 논의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시제 형식이 함축적 의미에 의해 선택되기도 한다는 문속영(2005)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반대로 함축적 의미를 배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 시제가 회피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접근이 순환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면, 함축적 의미가 시제 선택의 변수가 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함축적 의미를 의도한 선택 외에 함축적 의미를 피하기 위한 선택도 발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보도문이라는 특정 담화에서 ‘-었었-’이 잘 안 쓰이고 특히 ‘-은 바 있-’과 같은 표현이 대신 쓰이는 것은, ‘-었었-’이 가지는 함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화에서 ‘-있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sup>23)</sup> 보도문에서는 ‘-있었-’의 빈도가 극히 낮았던 것에 비해, 토크쇼의 경우 ‘-있었-’의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된 과거 상황보다 더 이른 과거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 예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즉 역순의 사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즉 대과거성을 의도하고 사용되었다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

다음은 토크쇼에서 발견된 ‘-있었-’의 예이다.<sup>24)</sup>

- (16) ㄱ. 쫘 놀았었지. 선아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쫘 놀게 생겼어요, 되게. 저  
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았는데.  
ㄴ. 저 실제로 찾아갔었어요, 물어볼라구.  
ㄷ. 제가 에스다이어리 때 연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때 감독님께서 얘기가  
자기야 하라고 그러셨어요.  
ㄹ. 예전에는 그냥 아프면 조금 아프다 이랬었는데요 저희 감독님께서 아 재는  
시키면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구.

위의 발화들은 선행 발화가 없는 첫 발화이거나 앞에 ‘-있었-’의 기준시가 될 만한 과거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발화로서, 사건이 역순으로 소개되면서 도입되는 ‘-있었-’과는 그 기능이 구별되는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있-’으로 바꾸어도 상황의 시간상의 위치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단순 과거형과는 달리 (16ㄱ)은 ‘현재는 놀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추가하고 (16ㄴ)은 ‘찾아갔어요’보다 ‘과거에 찾아간 경험을 진짜 한 적 있다’ 정도의 뉘앙스를 덧붙이며 (16ㄷ)의 ‘나왔었잖아요’나 (16ㄹ)의 ‘이랬었는데요’

23) 유독 ‘-있었-’은 다른 시제 어미에 비해 그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형태이다. ‘대과거’ 외에 ‘대조-경험’(성기철 1974), ‘단속상’(남기심 1979), ‘이후 다른 과거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기능’(이익섭·임홍빈 1983), ‘앞서 일어난 과거 사건과 이후 일어난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기능’(이남순 1994) 등이 그것으로, ‘대과거’를 제외하고는 대개 시제의 의미가 아닌 것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런 의미들은 모두 이를 부정하는 문장을 후속할 경우 쉽게 취소되는 것들로 대개 ‘-있었-’의 대과거 의미에서 비롯되는 함축적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의가 문숙영(2003)에서 제시된 바 있다.

24) 아래 발화는 모두 KBS 상상플러스 2005년 3월 2일 방송분에서 뽑은 것이다.

는 단순 과거형에 비해 진정 더 과거의 상황인 것 같은 뉘앙스를 더할 뿐이다. 이런 예들은 구어에서의 ‘-었었-’이 그 지시 의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었었-’에 따라 붙는 함축적 의미를 겨냥해 선택되는 일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보도문에서는 ‘-었었-’이 극히 낮은 빈도로 출현하면서 모두 대과거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는 환경에만 나타나는 반면에, 토크쇼에서는 ‘-었었-’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출현하지만 대부분 대과거로의 의미가 잘 추론되지 않으면서 ‘단속, 과거의 경험’ 등 다른 뉘앙스가 부각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사실은, ‘-었었-’의 빈도나 사용이 ‘-었었-’의 기본의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기본의미에 의해서만 ‘-었었-’이 선택된다면 담화 유형에 따른 빈도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sup>25)</sup> 그 환기하는 뉘앙스나 의미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었었-’을 다의어로 처리하더라도 보도문과 회화에서의 주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구어에서의 ‘-었었-’의 쓰임을 오용이나 남용 사례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독 구어에서 두드러진다는 차이는 여전히 남는다.

본고는 구어에서 ‘-었었-’이 선호되는 이유가 보도문에서 ‘-었었-’이 회피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구어에서 ‘-었었-’이 대과거가 아닌 ‘단속, 과거의 경험’ 등의 함축적 의미가 부각되도록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보도문에서는 이런 함축적 의미가 수반되지 않도록 ‘-었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었었-’이 움직인 자리에 ‘-은 바 있-’이라는 지극히 문어체적인 표현이 대신 사용된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은 바 있-’과 ‘-었었-’은 담화 구조상으로는 모두 ‘화제-설명’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차이로는 각각이 가지는 함축적 의미 외에 별다른 후보를 찾기 어렵다.

### 3.2. 시제 정의 및 시제 기능에의 함의

25) 담화에 따른 빈도의 차이 자체가 의의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빈도 차이가 해당 형식에 대한 ‘선호’나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이 지시하는 의미에 대한 요구가 담화마다 다를 수 있는 데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제 형식이 상황시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제 어미의 함축적 의미를 노린 화자의 전략 혹은 그것이 구현되는 담화의 구조나 유형에 영향을 받아 변칙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표현된 시제 어미와 실제 상황시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제 어미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제 논의에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우선 시제 범주를 정의하거나 어떤 형식이 시제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시제 어미의 지시 대상인 ‘상황시’에 대해 조금 유연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제가 ‘상황시의 위치’를 지시한다고 할 때, 그간 간혹 이 ‘상황’을 실제 객관세계와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예컨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어미가 결합되었다거나 이미 끝난 상황인데 현재어미가 결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어미가 ‘시제 범주’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시제의 정의가 ‘상황시의 위치’가 아닌 제3의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일례로 Klein(1994)는 ‘그는 죽어 있었다.’와 같은 예의 경우, ‘그가 죽어 있다’는 상황은 현재에도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때의 과거 형식은 상황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시(topic time)를 지시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시제의 정의를 화제시를 지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의 과거 형식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sup>26)</sup> 현재에도 유지되는 상황이고 끝이 나지도 않을 상황에 과거 형식이 결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제의 정의를 바꾸야 한다는 것은 시제가 지시하는 상황을 객관세계의 상황과 동일시한 데서 비롯된 분석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문맥이 허락하는 한 화자는 실제 상황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시제 어미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다음 보도문의 예는 실제 상황시와 상관없이 시제 어미가 얼마나 변칙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는 두 종류 이상의 시제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앞의 표현이 보도문 본

26) 본고의 목적이 Klein(1994)의 이론을 검토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상론은 하지 않기로 한다. Klein(1994)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한국어 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문숙영(2005) 참조.

래의 것이고 뒤의 표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 (17) ㄱ. 최근 서울 강남지역 고급 주택들이 줄줄이 도둑을 {맞고 있습니다./맞았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 대에 이릅니다.
- ㄴ. 24시간 독도 주변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는 경비대원들과 경비정 삼봉호. 높아지는 긴장의 파고에 경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하지만 동요는 없습니다. 철새들의 힘찬 나래짓은 독도 사랑으로 푹푹 뭉친 온 국민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섬 독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지키고 있습니다.}

(17ㄱ)은 동일한 상황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그저 과거에 일어난 상황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도둑을 맞고 있습니다.’는 실제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도둑을 맞았습니다.’는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객관 상황은 하나이지만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시제 유관 표현이 달리 선택된 것일 뿐이다.<sup>27)</sup> (17ㄴ)은 본래는 과거어미가 쓰였지만 현재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시제 어미에 따라 언급하고자 하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예들의 존재는, 시제 어미의 의미를 탐구하거나 어떤 형식에 시제범주를 할당하고자 할 때, 담화나 문맥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따른 시제의 변칙적 사용이 있음을 고려하고, 객관세계에서 해당 상황이 어떤 시간 구조를 갖거나 어떤 시간 위치에 놓이는가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음을 말해 준다.

시제가 담화 구조나 유형에 따라 변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제의 일차적 의미기능을 담화 속에서 찾아내려는 일련의 시도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담화 차원의 시제 어미의 용법을 시제 의미로 처리하는 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7) 화자가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면 ‘-고 있-’을 쓰고,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었-’을 쓸 것이다.

담화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담화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를 ‘전경’과 ‘배경’으로 나눈다. 예컨대 서사담화에서 보다 중요한 사건, 절차 상 중요한 단계, 주동인물의 행위 등은 전경으로 분류되고, 덜 중요한 사건, 부차적인 절차, 부차적 설명 등은 배경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의 구분은 시제나 상에도 이어져 과거시제나 완결상(perfective)에는 사건의 진전을 표시한다는 전경의 기능이, 현재시제나 비완결상(imperfective)에는 배경 상태를 지시한다는 배경의 기능이 할당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제 어미가 담화에 따라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변칙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은, 담화 안에서 시제 어미의 기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시제의 담화 역할이 시제의 일차적인 기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됨을 암시한다.

가장 비근한 예로 현재시제는 배경 정보에 붙는 전형적인 수단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역사적 현재는 ‘배경’보다는 ‘전경’의 기능을 할 때도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사실은 Wolfson(1979)에 의해 일찌감치 지적된 바 있다. Wolfson(1979)은 과거시제에서 현재시제로 바뀌는 곳에서는 사건의 분절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때로는 청중의 주의를 끌고 싶은 사건일 때 현재시제로 바뀐다고도 하였다.<sup>28)</sup> 만약에 현재시제의 일차적인 기능이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다면, 전경 정보에 가까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원래 과거시제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일부러 현재시제로 바꿔 표현한 데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 4.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보도문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상황이 요구하는 시제와 화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제 어미가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변칙적 사용에는 담화의 구조나 유형과, 해당 시제 어미의 함축적 의미

28) 이런 예로 Wolfson은 when 종속절은 과거시제면서 주절은 현재시제로 표현되는 예를 들었다. 대개는 when 절이 과거이면 주절도 과거로 나타나는데, 간혹 새 사건에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주절이 현재시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에 대한 선호와 회피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휘에서도 그렇지만 시제 형식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화용적 쓰임 중에 부차적 의미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칙적 사용을 이끌거나 허용하는 조건을 명세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가 제시한 담화의 구조나 유형, 그리고 시제 어미의 함축적 의미는 시제 어미의 변칙적 사용을 유인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이런 조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례들이 다른 종류의 담화에서 발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가 시제의 전체 사용 양상은커녕 보도문에서의 시제 양상조차 모두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시제와 같은 문법범주에도 화용적인 쓰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해당 형식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하는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정도만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김홍수(1989), “국어 시상과 양태의 담화 기능”, 『이정 정연찬선생 화갑기념논총』, 탑출판사, pp. 315-334.
- 남기심(1978/1995), “-었었-의 쓰임에 대하여”, 『한글』162, 한글학회. [남기심 (1995)에 재수록, pp. 35-44.]
- 남기심(1995),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문숙영(2003), “대과거 시제와 ‘-었었-’”, 『어문연구』 120, 한국어문고교육연구회, pp. 59-83.
-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기철(1974), “경험의 형태 {-었-}에 대하여”, 『문법연구』1, 문법연구회, pp. 237-270.
- 이남순(1994), “었었放”, 『진단학보』78, 진단학회, pp. 377-393.
- 이익섭(1978), “상대 시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pp.367-376.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임철성(1991), 『현대국어의 시제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 장경현(2006),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석(2002),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Historical Present Tense”, 『현

- 대문법연구」 27, 현대문법학회, pp. 147-160.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회.
- Bybee, J. and Dahl, Ö. (1989), "The creation of tense and aspect systems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Studies in Language* 13.1, pp. 51-103.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 Dowty, D. (1986), "The Effect of aspectual class on the temporal structure of discourse: Semantic or Pragmat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pp. 37-62.
- Jespersen, O.(192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3, Heidelberg: Winter.
- Joos, M. (1964), *The English Verb*,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iparsky, P. (1968),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 of Language* 4, pp. 30-57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 Mimo Caenepeel & Marc Moens(1994), Temporal structure and discourse structure, *Tense and Aspect in Discourse*,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pp. 5-20.
- Nessa Wolfson(1979), The Conversational Historical Present Alternation, *Language* 55, pp. 168-182.

서울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세계화 사업단  
서울시 신림 9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동 424호  
전화 번호: 02-880-2516(010-8639-5404)  
전자 우편: cecilmun@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08년 11월 7일  
원고 수정일: 2008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2008년 12월 22일